

2020년 3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20. 3. 27.(금)

■ 주요 회의 내용

▲ 정윤식 위원장

- 3/15(일) 오후 4시35분 통합당 공천논란 불씨, 해설 및 토론자로 참여한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음. 향후 자주 출연했으면 함, 다만 출연진의 이름이 화면에서 자주 명기되었으면 함, 이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연합뉴스TV가 전반적으로 기자, 앵커, 출연진의 이름 직업에 대한 자막소개가 드문 편임. 출연진의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 더 빈번하고 뚜렷하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을 것임
- 3/27(금) 재승인 설명 및 홍보, 자막에서 연합뉴스TV가 재승인 받았다는 내용이 나옴. 시청자들에게 재승인의 의미와 내용을 전달하고 <앞으로 더 성의껏 시청자에게 봉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 30초 정도의 간단한 회사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프로그램 방영 전후 삽입할 수도 있을 것임. 간단한 로고송도 있으면 좋을 것임(예를 들면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 한국은행이 "한국판 양적완화를 실시한다"는 뉴스 아이템은 더 심층 취재 보도할 필요가 있음. 양적완화를 하면 인플레이션이 되고 주가가 상승할 것인지? 등 직접 시청자의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전문가의 해설 등을 통해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음. "서울재난 긴급생활비 30일부터 5부제 신청"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에 대해 소상히 알려주면 시청자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임, 이외에도 정부의 기업이나 시민들의 재정지원 대책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었으면 함. 뉴스가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팩트만 제시하고 있음. 즉 시청자에 대한 <설명책임>과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 서비스의 역할이 부족함
- 해외 뉴스와 토픽에 대한 내용이 다소 많은 것 같음. 인도 경찰이 주민들을 강압적으로 다루는 장면 같은 것은 시청자들에게 불편한 내용일 수도 있음. 미국의 실업수당 328만명 청구" 라는 아이템을 더 심층 취재하여 미국이 복지차원에서 대 국민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었으면 함
- 7시 13분 두 분 앵커의 발음, 음성은 성우보다도 더 좋은 것 같음. 그러나 뉴스 전달 속도가 전반적으로 빠른 것 같음. 이 프로그램 이외에도 연합뉴스TV 뉴스 전달 속도가 전반적으로 다른 방송 채널 보다 빠른 것 같음. 본 위원만의 주관적 판단인지? 다른 시청자들도 그렇게 느끼는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선택과 집중 편성의 지속,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 채널은 코로나 사태 와중에서도 연예, 오락방송을 할 수 밖에 없음. 연합뉴스TV와 YTN의 경우 하루 종일 코로나만 방송함으로 시청자들의 관심과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음, 다른 뉴스 아이템이 다소 희생되더라도 당분간 코로나에 집중보도하는 것은 바람직함
- 시청자의 이해와 관심이 있는 분야 비중 확대, 생활, 주민 밀착형 아이템 확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재난 긴급생활비 30일부터 5부제 신청" 같은 뉴스는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음

- <국민 생활상 리포트> 코로나 사태 이후 변모하는 국민들의 생활상을 시청자 인터뷰 등을 통해 직접 애로사항을 수렴하면 공감하면서도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많을 것임. 시청자들의 독특한 해결방식 (예 드라이브 스루)들은 국가정책적으로도 반영할 수 있을 것임. 재택근무 효율적인 재택근무 방식이나 재택근무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 (방콕(방에 콕 쳐박혀 있음)생활의 이모저모, 맞벌이 부부 보육/유아 문제, 쇼핑(택배문화), 확찐자 등), 관혼상제 문제 : 특히 장례식 참석이나 장례방식의 문제, 결혼식 문제 등, 학교 휴교문제, 공무원 시험, 취업 및 신입사원 충원문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삶의 이모저모, 빈민층, 노숙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이모저모, 연예인, 스포츠 스타(올림픽 연기 등) 들의 최근 생활상 (공연 취소, 자선사업 등)
- 위기의 한국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집중 토론 및 해설 : 전문가 대담 및 해설, 세계 경제속의 한국경제 : 한국경제의 탈출구, 양적완화 문제, 정부 기업지원대책 및 재정정책, 복지 재정정책, 일자리, 실업문제, 민생문제
- 단기적으로 우선순위는 거대담론(위기의 한국경제) 보다는 “새롭고도 재미있는 또는 슬프고도 고달픈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인터뷰 및 스케치 방식으로 전달했으면 함.
- 시청자들이 초기에는 팩트(1일 몇 명의 환자가 늘어났다)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나 점차 코로나에 대해 면역성이 생겨서 이제는 팩트 중심보다는 시청자 중심으로 아이টে을 보완했으면 함. 다음 단계로 거시담론의 해설도 필요할 것임.

▲ 조영숙 부위원장

- 3월16일자 연합뉴스TV 스페셜 122회 “함께 극복해요 코로나19”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전달을 넘어서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공중보건 위기가 자칫 해외에서 간혹 발생하고 있는 인종차별, 지역차별 등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좋은 보도사례라고 생각됨. 동 보도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시청자들이 어떤 관점과 태도 및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수작임. 그 중에서도 특히 대구지역 확진자들을 광주 지역에서 치료받게 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광주시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지켜야 할 올바른 생각과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인터뷰어는 1980년 광주시민들이 겪었던 외로움과 고립감, 지역주민에 대한 비난과 대구지역을 향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비난이 다르지 않음을 일깨워주면서 지역 간 나눔과 연대를 직접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코로나19 보도가 정보를 즉자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청자들이 코로나19 시대에 취해야 할 올바른 생각과 태도의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됨.
- 외신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국제사회에서 부각되고 있음.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많은 만큼 공포와 우울감이 커지는 것은 불가항력인 듯 함. 하지만 한국사회가 함께 이 시기를 극복해나가는 모습은 국제사회의 부러움을 사고 있으며, 그만큼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음. 소위 ‘국뽕’에 도취되어서는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장점과 자랑을 간과할 필요는 없는 듯 보임. 우리 주변에 있는 성숙한 시민들의 실천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공포와 우울감이 지배하는 코로나19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한 좋은 치료제라 여겨짐. 성숙한 시민들이 지닌 올바른 생각, 태도, 행동의 모범사례를 모아서 즐겁고 행복한 스페셜을 만들어 주시면 코로나19시기의 공포와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됨.
- 이미 많은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겠지만, 짧게라도 재발방지를 당부 드리고자

함. 3월 19일 오후2시 뉴스특보는 대구에서 폐렴으로 사망한 17세 고교생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다행히' 코로나19에서 최종적으로 음성판정이 나왔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故 정군의 죽음이 코로나만 아니면 '다행'인 것이냐는 오해를 충분히 낳을 수 있었던 멘트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죽어가는 시점에서 위와 같은 표현방식은 매우 유의해야할 일임. 예측보다 훨씬 길게 가고 있는 코로나19 보도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총선보도에 관한 당부.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논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채 정작 유권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정책은 오리무중임. 이에 연합뉴스TV가 선거상황실과 뉴스특보를 통해 총선전망을 보도해 주고 있지만, 다루어지는 정보의 대부분은 정당간의 이전투구나 비례대표 후보에 관한 논란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 정작 유권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정책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함. 물론 현재의 정당정치 행태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보고 후보를 결정하려는 유권자들이 대다수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정보를 강화해 주시기를 요청 드림.

▲ 박성용 위원

- 3월 8일(일) 12시 20분경, "사진 속의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간호장교 임용 후 대구행', '이만희 신천지 기자회견장' '119 점심도시락 장면' 등의 사진을 제공하였음, 이는 사진으로만 느낄 수 있는 시청자들의 감성을 자극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좋았음, 다만, 여기에 지난 주 주요 뉴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는 않았음. 이에, "사진 속의 세상"을 가칭 "사진으로 보는 지난 주 주요뉴스"라는 제목으로 변경하고, 지난 주 주요뉴스에서 사진으로 더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장면을 제시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함, 일요일에 지난 주 주요뉴스를 정리해서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며(일부 방송사에서는 REVIEW? 등의 제목으로 제공하고 있음), 이를 진행자의 설명 없이 관련 사진으로 제시하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을 시청자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임

- 3월 12일(목) 뉴스특보 시간에 "WHO 코로나 119 팬데믹 선언"이라는 뉴스와 함께 WHO에서 너무 늦었다는 전문가 비판이 있다는 내용만 관련내용으로 방송됨, 시청자들은 팬데믹이 선언되면, 이것은 의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달라지는(규제를 받는)것은 무엇인지?(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예를 들면, 해외여행이 금지된다는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등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궁금해 함, 따라서 WHO가 팬데믹을 선언했다는 사실을 방송하면서, 동시에 이와 관련하여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코로나19 예방관련 방송 부재, 3월은 매일 코로나 19 관련 뉴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뉴스의 대부분이 이미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제공됨, 연합뉴스 TV에서 예방을 위한 탐사보도 형식의 뉴스제작 등 코로나 19 예방이나 감축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제작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음, 타 방송사(예를 들면, CBS 라디오 방송)에서는 클럽이 최근 성행이어서 감염전파가 우려된다는 뉴스를 자체 제작(클럽 DJ 인터뷰)하여 방송하고, 이것이 다른 언론에서 주요뉴스의 하나가 되었음

- 여성 진행자의 머리형태가 한결 같아서(긴 머리에 반은 앞으로, 반은 뒤로) 부자연스러우며, 진행자별 특성도 보이지 않음, 3.18일(수) 09뉴스에서는 여성 진행자가 머리를 뒤로 묶

고 있어서 좋았음, 진행자 개성이 표현될 수 있도록 머리 형태를 다양화하는 것은 어떠한지 검토를 요망함

▲ 박성복 위원

- 현재 모든 뉴스채널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절망감과 아울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근심에 휩싸여 있음.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임으로서 사람들의 불안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간의 인적 유대는 약화될 것이라는 생각까지 듦.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여러방면의 다양한 사람들의 서로 격려하며 협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더 다루어준다며 뉴스를 통해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함.

▲ 김경만 위원

- 3/9 정부 "마스크 5부제"시행 브리핑, "마스크5부제"시작, 노약자 대리... 정부가 심각한 마스크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마스크 구매 5부제에 대해 설명, 이와함께 마스크 노약자 대리 구매 가능 내용 보도 등등, 마스크 부족문제에 따른 약국앞에 줄을 선 풍경을 경쟁하듯 보도하고 관련 앱의 출시 등을 다룬 것은 마치 소비자와 국민의 안전을 향한 애절한 모습만을 부각한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음, 특히 심각한 경제위기상황 가운데 청와대와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관료 모두가 마스크 문제에만 매달리는 문제를 지적한 기사 또는 방송이 없어 매우 아쉬움. 즉 초창기 우리정부의 대응이 마스크 문제에 너무 치중하지 않았냐 하는 아쉬움을 가져봄. 또한 마스크 관련 대책도 초창기부터 강력한 통제를 통해 공급량을 조절하고 수출기업의 기존 계약분 마스크의 수출에 대해서는 조금은 탄력적인 접근을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 마스크 관련 기사도 약국에 줄을 서는 모습 또는 생산량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중점 보도 보다는 마스크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음

▲ 장유리 위원

- 현재 문화예술계도 모든 공연과 행사가 취소 되어 많이 위축되어 있음. 공연을 녹화하여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사례도 있는 상태에서 3월11일 뉴스 미술계도 코로나 여파로 관람객이 줄고 전시가 취소되는데 작가와 화랑들이 힘을 합해 자선 경매를 열고 수익금 전액은 대구 의료지원에 쓰기로 하는 보도는 훈훈한 내용과 더불어 예술계의 선행이 어필되어 보기 좋았으며 그 외 공연예술계 모습도 취재한다면 뉴스의 내용들이 조금은 풍성함으로 이어질 듯 함.

- 3월22일 코로나19 함께 극복, 캠페인 영상 유튜브서 화제란 보도 역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서로 돕는 모습을 담은 SNS영상 기사는 마스크 나누기 등을 통해 서로 힘이 되려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위기때 뭉쳤던 우리나라 국민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말보다는 뉴스전파로 국민통합을 이끄는데 일조 할 수 있음.

- 3월23일 뉴스 특보 구세군 마스크 모금 감염 취약군 보건용 마스크 우선사용 캠페인 서울시 보건용 마스크 기부시 면마스크, 손소독제 지급 구세군 자선 남비에 마스크를 기부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국민들의 모습을 담은 뉴스는 국민 정서와 화합에 직, 간접적인 어필로서, 이러한 뉴스의 모습은 강력한 말보다도 더 임팩트 있는 사회적 동참을 이끌게 하므로 지속적인 뉴스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됨. 3월 말일까지 마스크 기부 캠페인이 이루어 진다

고 하였으므로 후속 기사가 나갔으면 좋겠음.

- 3월 27일, 와치맨 피해자 관련 인터뷰 와치맨이란 전모씨를 보도를 통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음. 악랄한 n번방 사건 조씨의 기사와 더불어, 특히 여성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텔레그램 사례들의 지속적인 보도가 필요하며, 박사방 외에도 활동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많다고 하는데 사회악의 근절을 위하여 그들의 악행을 파헤치는 보도가 우리 연합뉴스TV가 선두에 있길 바람.

- 코로나상황의 국내 해외 발빠른 보도 내용들 잘 보고 있음. 온도가 올라가는 여름이면 잠식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더운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발생 하고 있으므로 6,7월이면 잠식될것 이란 국민들이 많으므로 변이과정, 변이상황, 소멸온도의 과학적인 부분 등 전문가 패널을 통한 인터뷰 기사가 필요하다 사료됨.

▲ 백대용 위원

-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입고 있음. 이런 상황에 방송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어서 감사 함.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국가적 혼란 속에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소비자들이 아직도 많음. 5부제 공적마스크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마스크라도 어떻게든 구해보려는 눈물겨운 행렬이 전국 곳곳에 늘어서 있음. 마스크 수급상황이 현재로서는 단시간에 해결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마스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마스크 부족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어 보임. 즉, 마스크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마스크를 오래 사용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문가들의 자문을 기초로 정리하여 소비자들에게 정보 제공형 보도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었으면 함. "코로나 19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과 "코로나19 의심증상시 행동수칙"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서 내보면 좋겠음.

-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업자도 소비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결혼이나 돌잔치, 여행 등 각종 구매상품이나 서비스의 취소로 인해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어 주었으면 함. 현재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서울시가 협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후속보도가 이루어졌으면 함. 아울러 사업자와 소비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만들었으면 함. 시청자들이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자와 소비자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양보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연합뉴스TV가 사회적 갈등해소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됨.

- 아동 교통사고 가중처벌법인 소위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되었음.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으로 이뤄져 있음.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 하게 됨. 민식이법으로 인해 자녀들의 등하교를 도와주는 부모님들(특히 가정주부)이 불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므로 민식이법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인식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분간 지속적인 안내가 이루어졌으면 함. 25일을 전후한 연합뉴스TV의 보도기사는 대부분 민식이 법이 시행된다는 내용만 간단히 소개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있어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의 안내방송을 해 주었으면 함.

▲ 허찬행 위원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때문에 모든 매체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에 집중되고 있음. 방송 뉴스 역시 코로나19관련 뉴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어떤 방송사의 뉴스가 더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가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임. 상황이 상황인 지라 어떤 방송사 뉴스가 특색 있는지 보다는 대동소이 하기 때문임. 이점에서 연합뉴스TV는 24시간 뉴스 전문 편성 채널인 만큼, 양적인 측면에서 타방송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코로나19 상황을 전달하는 매체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함. 다만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다루면서 핵심내용, 또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빠진 뉴스를 전달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보임. 예를들어, 3월10일 뉴스01(새벽 1시 9분경) 뉴스에서 보도한 괴산군 마을주민 코로나19 10명 감염 보도의 경우, 마을을 격리하고 주민 및 소방대원들은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음. 하지만, 왜 해당 마을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발병했는가에 대한 언급은 없음. 시청자 입장에서 뉴스를 보면서 가장 궁금한 건, 발생 사실 다음 발생 원인일 것임. 가장 궁금하고 알 필요가 있는 원인은 언급조차 없는 뉴스임. 영상자료에 나온 시간은 낮 시간인데, 그렇다면 정부 당국이나 추가적인 취재가 뒷받침돼 어떤 이유로 충북 괴산군의 한 마을에서 주민 10명이 감염되었는지가 다뤄졌어야 함. 감염경로에 대한 정부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능성 중 어떤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역학 조사 중인지 등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음. 취재를 안 한 것인지 혹은 못한 것인지 핵심이 빠진 뉴스가 아닐 수 없음. 발생 사실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뉴스를 내 보내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시청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기대하는 순간에 “연합뉴스TV 000입니다”라는 마무리 멘트를 듣는 것만큼 당혹스러운 것은 없을 것임

- 연합뉴스TV를 포함한 모든 언론에 해당하는 문제임. 일부 기독교 단체가 교회에 모여 집단 예배를 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행정명령이나 주민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를 탄압한다는 성명을 내거나 예배를 강행한다는 것을 보도할 때, 언론의 중립성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도하길 바람. 그들의 입장을 보도하는 것은 사실 자체지만, 마치 일부 종교단체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방향의 보도는 부적절해 보임. 종교의 자유란 가장 근본이 종교적 신념(신앙)의 자유에 대한 것이고, 종교 집회나 집단예배와 같은 종교적 행위는 법률에 의해 일부 제한할 수 있는 영역임. 그런데 그 같은 구분을 하지 않고, 정부당국이나 주민들의 집단 예배 자제 요청을 종교의 자유를 탄압한다는 주장을 그대로 보도 하는 것은 중립을 지키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함. 지금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모든 시민들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사회적 거기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일부 종교단체의 행위가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실천에 위배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종교의 자유의 문제나 종교탄압의 문제가 아니라 이기적인 집단 행위라는 점 등을 보다 명확하게 지적을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 생각함. 따라서 연합뉴스TV만큼은 이 같은 문제의 핵심을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는 역할에 보다 충실하기를 기대함

▲ 나지수 위원

-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기획 바람직하다고 보임, 계속해서 시청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 확진자증가에 대한 뉴스가 주류를 이루는 시점에 3월26일 방송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정소독 및 소독효과 높이는 방법' 등 유익한 내용이라고 생각됨, 생활속에서 코로나 예방법 등을 하나씩 소개해주면 어떨까 함,

- 사망한 17세 코로나 음성확인됐다고 보도하면서 다행이라고 언급하는 앵커들. 어린학생의 사망 앞에서 부적절한 표현인것으로 보임.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있다고 해석될 여지 있어 보입니다.

- 3월21일 1명의 패널이 나와서 장시간 코로나 관련 온갖 주제(의학, 경제, 국제문제, 올림픽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도채널로서의 신뢰와 전문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보임. 기존에도 언급했듯이 소속이나 이름 등 어느분야 전문가인지 표시 필요

- 3월22일 09:20 패널1명 신문방송학과 교수 앵커가 온갖 종류 질문. (도쿄올림픽연기 의료진현황 유럽발입국조치 재난기금 등) 왜 신방과교수를 섭외해서 온갖종류 문제를 논하고있는지. 긴시간을 할애해서 질문&답을 보도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 여러상황상 섭외의 어려움, 방송국내방한 패널의 활용문제 등이 있겠지만..

▲ 서창호 위원

- 3/3 출근길 인터뷰 등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 관련 보도, 연일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 소식으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전문가 인터뷰,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법 안내를 통해 심리적 방벽의 중요성과 스트레스 대처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어 좋았음.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을 해주시길 바람.

- 3/4 안철수 대구 의료봉사 관련 보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수술복 입은 상태로 화상 연결로 최고위원회의의 진행하는 장면을 내보내면서 부인과 함께 대구 동산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함. 총선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홍보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부적절해 보임.

- 3/19 코로나19 17세 고교생 음성 판정 관련 보도, 대구에서 폐렴으로 사망한 17세 고교생 음성 판정 소식을 전하면서 "다행히"라는 부적절한 멘트를 사용함. 여러 논란이 제기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므로 멘트 선정에 더욱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음.

- 3/22 한부모가족 생계 문제 관련 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 피해사례를 보도하고, 착한 임대료 운동 소식과 정부 지원 관련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생계 위협이 큰 계층인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조명하고,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경각심을 일깨워주어 좋았음. 다만, 문제 해결 방안, 정부 대책 등에 대하여도 함께 살펴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최근 n번방 관련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용어 선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